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경험이 품행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현아** · 송현주***

초 록

대인간 외상경험은 품행문제를 일으키는 주요원인 중 하나로 간주되며, 대인간 외상경험이 있는 품행문제 청소년들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능력에 결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함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자신과 타인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지각하는 능력인 정신화의 결함에서 기인한 것이라 가정하고, 정신화가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경험과 품행문제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소재 3개의 중학교 남녀 2,3학년 339명을 대상으로 외상경험 질문지,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의 외현화 척도를 실시하였으며, 정신화를 다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신화 질문지(MZQ), 한국판 단축형 공감척도(EQ-Short-K), 아동용 눈으로 마음읽기 테스트(C-RMET)를 사용하여 정신화를 측정하였다. 먼저 대인간 외상, 품행문제, 정신화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대인간 외상과 품행문제의 관계에서 정신화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과 정신화 능력은 품행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인간 외상이 품행문제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데 정신화의 하위요인인 눈으로 마음읽기와 거부적 자기조망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화의 다차원적 요인 중 눈으로 마음읽기 능력과 스스로를 조망하는 능력인 자기조망 능력이 청소년의 품행문제를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신화 능력이 품행장애의 치료적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대인간 외상, 품행문제, 정신화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2014년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교신저자, jayoo1004@swu.ac.kr

I.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를 잇는 교량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발달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다(한영옥, 2008).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신체적 성장과 심리·사회적 성숙간의 불균형으로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또한 여러 가지 내적 외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을 가능성이 많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정신 병리적 증상들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Parker & Asher, 1987). 그 중 청소년의品行문제는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으며,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品行문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이효선, 방명애, 2012). 특히 청소년기의品行문제는 성인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있으므로(Harrington, Fudge, Rutter, Pickles & Hill, 1990; Kovacs, 1989), 효율적인 개입을 위해 청소년들의品行문제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을 밝히는 것은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교육 현장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品行문제를 비롯한 반사회적 행동의 원인에 대한 여러 이론이 제시되어 왔고, 외국에서 외상과品行문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연구되었다(Greenwald, 2002; Koenen et al., 2005; Terr, 1991). 그러나 국내 연구 중品行문제의 전개과정과 지속에 중요인으로 작용하는 외상과의 관련 연구는 아직 미미하며, 그나마도 대개의品行문제 관련 연구는 시설에 있는 비행청소년(이희정, 2001; 한영옥, 1999)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학교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된 사회적 환경이므로(박영주 외, 2009), 임상장면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을 비롯한 비 임상장면에서도 외상정도가 심각한 아동과 청소년을 가능한 조기에 찾아내는 것과品行문제를 치유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만약 청소년기에 반사회적 행동을 미연에 확인할 수 있다면, 성인기에 이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보다 더 좋은 예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외상 후유증과 반사회적 행동을 치료하기 위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정신화다.

정신화(mentalization)란 자신과 타인의 의식적·무의식적인 정신상태를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Fonagy, 1991), 적절한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발된다(Bateman & Fonagy, 2012). 이러한 능력의 발달은 삶의 어려움에 대처

하는 능력인 탄력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Allen & Fonagy, 2006), 부족할 경우 반사회적 행동 및 정신 병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ateman & Fonagy, 2012). 그 중요성에 따라 현재 정신화 이론은 영유아는 물론 청소년, 성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방식이 개발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정신화 이론을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반건호,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화 이론에 근거하여 품행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대인간 외상경험과의 관계에서 정신화 능력이 두 변인 간에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은 품행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과 품행문제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전반적인 실패는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2-1.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과 품행문제의 관계에서 거부적 자기조망은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2-2.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과 품행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은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2-3.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과 품행문제의 관계에서 정신적 동등모드는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2-4.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과 품행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은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연구가설 3.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과 품행문제의 관계에서 공감은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연구가설 4.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과 품행문제의 관계에서 눈으로 마음읽기 능력은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대인간 외상과 품행문제의 관계

품행장애(conduct disorder)는 폭력, 방화, 도둑질, 거짓말, 가출 등과 같이 난폭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통해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를 말한다(권석만, 2013). 현대 정신의학 장면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 편람 DSM-5(APA, 2003)에서는 품행장애를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나이에 적합한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행동 양상이 최소 6-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진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 발병 품행문제는 정상적인 초기발달과 타인에 대한 폭력에 있어서도 10세 이전 발병보다 덜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게 되므로(이춘재 외, 2011), 품행장애의 발생 시기에 따라 문제양상, 수준, 심각도에 따라 대처방법을 달리해야한다(김혜순, 이숙, 2016).

청소년의 품행문제를 비롯한 반사회적 행동의 원인에 대해 여러 이론이 제시되어 왔고,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품행문제가 기질, 성별, 낮은 지능, 낮은 대처 기술, 사회관계 실패, 가족력, 또래의 거부 외상경험 등 많은 위험 요인들로 인해 유발 된다고 알려져 있다(Kazdin, 1995; Moffitt, 1993; Patterson, DeBaryshe & Ramey, 1989; Greenwald, 2000). 그 중에서도 외상은 품행문제 청소년들의 공감결여, 충동성, 분노, 폭력적 행동, 통제 곤란과 같은 주요특징을 설명하는 품행문제의 핵심 위험 요인이다(Chemtob, Novaco, Hamada, Gross & Smith, 1997; Greenwald 2002).

외상은 크게 단순외상(simple trauma)과 대인간 외상(interpersonal trauma)으로 나눌 수 있는데(Allen, 2008), 단순외상은 제한된 시간이나 공간에서 뜻하지 않은 갑작스런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 생긴 외상을 말하는 반면, 대인간 외상은 학대나 방임과 같은 스트레스 사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생긴 외상을 말한다(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 하지현, 2009). 대인간 외상은 이후 발달, 정서, 및 행동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유재학, 서민재, 박지선, 2013), 예를 들어 대인간 외상에 해당되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대인문제 해결력이 낮으며,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skett, 1990). 또한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장기화된 대인간 외상을 경험한 아동은 대체적으로 분노를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였으며 (Chermtob et al., 1997; Luxenberg, Spinazzola & Van der Kolk, 2001), Bateman과 Fonagy(2012)의 연구에서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아이는 타인의 관점을 거의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인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을 주는 후기 탄력성이 결여되었다. 이렇듯 대인간 외상경험은 품행문제 청소년들의 공감결여, 충동성, 분노, 폭력과 같은 주요 특징을 설명하는 요인이다(Greenwald, 2000; Rivera & Widom, 1990).

2. 정신화 능력

정신화(mentalizaation)란 자신과 타인의 감정 상태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형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Fonagy, Gergely, Jurist & Target, 2002) 개인의 욕망, 감정, 신념과 같은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기초로 자신과 타인의 행동의 내재적, 외현적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을 말한다(Bateman & Fonagy, 2006).

일정한 사회 맥락에서 획득되는 사회-인지적 능력으로 정신화는 마음이론 부터 정서지능까지 아우르는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개념으로(Newbury-Helps, 2011) 초기 정신화 이론은 조작하기에 너무나 넓고 광범위한 구조로 인해 많은 학자들의 비판을 받았다(Choi-Kain & Gunderson, 2008; Holmes, 2005; Semerari et al., 2005). 그러나 정신화는 변하지 않는 단일의 능력이나 특성이 아니다. 오히려 스트레스와 각성, 특히 특정 애착 관계의 영향을 받는 역동적인 능력으로(Allen, Fonagy & Bateman, 2008), 그 의미를 보다 잘 반영하는 구성 개념들의 선별을 위해서는 정신화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다차원적인 시각에 볼 필요가 있다.

Fonagy와 Luyten(2009)이 구분한 다차원적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정신화의 개념을 살펴보면, 정신화의 가장 기본적인 양극단의 개념은 암묵적인(implicit)차원과 외현적인(explicit)차원을 비교하는 것이다(Lieberman, 2007; Satpute & Lieberman, 2006). 외현적인 정신화하기는 일반적으로 언어, 성찰과 주의 집중, 의도, 자각, 노력을 요구하여 자극의 처리가 순차적이며 시간이 상당히 소요 된다.(Allen et al., 2008; Fonagy & Luyten, 2009; Bateman & Fonagy, 2012). 즉, 외현적인 정신화하기는 통제적이고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암묵적 정신화하기

는 병렬 처리로 인해 처리 과정이 보다 빠르다. 또한 주의집중과 의도, 자각에 대한 노력을 거의 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본능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Satpute & Lieberman, 2006).

두 번째 정신화의 다차원적 구성 요소는 내적 초점(internally focused)과 외적 초점(externally focused)에 따른 정신화를 비교하는 것이다. 내적으로 정신화하기는 자신 또는 타인의 사고, 감정, 욕구와 같은 내적 상태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외적으로 정신화하기는 자신 또는 타인의 얼굴표정, 행동과 같은 외적 특징을 토대로 정신화 하는 것을 말한다(Bateman, Bolton & Fonagy, 2013). 예를 들어 문은옥, 김혜리, 천영운, 김태화와 최현옥(2014)의 연구에서 품행문제 청소년들은 품행문제 청소년이 슬픈 표정 동영상을 볼 때는 오히려 웃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품행문제 청소년들에게 외적인 정신화 능력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연구이다.

세 번째 다차원적 구성 개념은 자기지향(self oriented) 대 타인지향(other-oriented)에 대한 차원으로, 감정, 사고, 동기, 의도, 신념, 욕구, 바람 등의 정신 상태에 대해 정신화를 하는 대상이 자기인지 타인인지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 측면이다(Choi-Kain & Gunderson, 2008).

마지막 정신화의 다차원적 구성 개념은 인지적(cognitive)·정서적(affective)과정을 비교하는 것이다. 인지적 정신화하기는 신념, 유추(reasoning), 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등의 과정을 말한다. 반면 정서적 정신화하기는 정서적 공감, 주관적 자기 경험,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정신화하는 과정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반사회성 성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이하 ASPD) 환자들은 타인에게 감정 이입하진 못하지만 인지적인 통찰을 통해 타인의 내적 상태를 읽는데 능숙하다. 그러므로 ASPD 환자들은 자신들의 능숙한 인지적 정신화하기 능력을 타인에게 자신들의 의지를 강요하거나 조종하는데 오용할 수 있다(Bateman et al., 2013).

이러한 양극단의 구성 개념에서 둘 중 한 가지 요소의 기능 부전은 반대쪽 극단의 과부하를 가져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신화의 기능 중 인지적인 요소의 기능 부전은 부적절한 정서 상태의 표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Bateman & Fonagy, 2012). 또한 자기와 타인을 성찰하는 능력의 불균형이 극단적이 될 때는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반사회적 성격의 사람들은 노련하게 타인의 마음을 읽고 악용하거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이용한다. 반면 자기애성 성격의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내부 상

태에 집중한다. 즉, 자신 또는 타인 한쪽으로서의 과도한 집중은 편파적인 관계와 왜곡된 사회적 상호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Bateman et al., 2013), 성공적인 정신화 능력을 획득하는 핵심은 이러한 다차원적인 요소를 일관성 있는 전체로 통합하는데 있다(Bateman & Fonagy, 2012).

정신화의 평가 또한 다차원적으로 측정되어야하는데 초기 정신화 능력에 대한 평가는 성인 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을 통해 이루어졌다(George, Kaplan & Main, 1996). 이후 AAI수행 자체 소요시간이 한 시간 이상으로 길어 환자들을 측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유용성에 한계가 있음이 대두되었다. Fonagy et al.(1995)은 이러한 AAI를 토대로 Reflective Functioning Scale를 개발하여 정신화를 평가하였지만, 이 역시도 시간의 소비와 그 복잡성으로 인해 임상장면의 환자들의 정신화 능력을 측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Hausberg et al., 2012). 이에 반해 청소년용 성찰기능 설문(Reflective Function Questionnaire for youths, Sharp et al., 2009)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수월하여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으로 정신화 능력을 평가하였다(차혜명, 김은영, 2016). 이후 Hausberg et al.(2012)은 434명의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측정이 쉽고 임상장면에서 적용이 가능한 자기보고식 정신화 질문지(Mentalization Questionnaire; MZQ)를 개발하고 척도의 충분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최신 평가 척도로는 Beaulieu-Pelletier, Bouchard and Philippe(2013)이 성인에서 사용 가능한 정신화 능력 평가 척도인 Mental States Task를 개발하여 정신화를 측정하였다(반건호, 2013).

그러나 국내에서 정신화 이론을 다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아직 결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오소영 외(2012)가 정신화 이론을 접목하여 학교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적용한 시도가 있었으나 정신화 측정 시 공감척도만을 사용하여 정신화를 다면적으로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김재형(2014)과 이현주와 안명희(2012)는 정서조절 곤란척도를 대체하여 정신화를 측정하였는데, 이들 척도 또한 자기보고식 척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제한점과 더불어 정신화라는 다차원적인 개념을 측정하는데 큰 취약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공감척도(EQ), 아동용-눈으로 마음읽기 테스트(C-RMET), 정신화 질문지(MZQ)를 통해 정신화를 다면적으로 측정하였다. 세 가지 척도를 측정도구로 선택한 이유는 Bateman과 Fonagy(2012)가 발간한 핸드북에 따라 공감 척도를 통해 정신화의 다차원 요인 중 내적인 정신화

능력을 측정하였으며, 눈으로 마음읽기 테스트를 추가하여 정신화 외적인 능력을 측정하도록 보완하였다. 나아가 정신화의 전반적 실패를 측정하는 정신화 질문지를 추가하여 정신화를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정신화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뉘는데 그중 하나가 아동 분석 메뉴얼 개발과 그에 따른 발달학적 이론의 개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신화의 손상이 다양한 정신장애의 발생과 관련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반건호, 2013). 본 연구에서는 대인간 외상경험이 있는 품행문제 청소년과 정신화 능력이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외상은 품행문제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 주요 변수 중 하나이며(Greenwald, 2000), 자기와 타인의 심리상태에 주의를 두는 정신화 능력의 손상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다(Allen et al., 2008; Bateman & Fonagy, 2006; Perelberg & Shengold, 1999). 그 중에서도 특히 대인간 외상에 해당하는 애착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타인의 마음 상태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하고, 타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낄지에 관하여 대책 없어하며, 자신의 마음상태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서도 통찰이 부족하다(Allen & Fonagy, 2006). 그 결과 애착 외상경험은 정신화의 발달을 방해하며 관계에서 심리상태를 상상하는 능력을 억제하고 가해자의 마음을 지각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한다(Fonagy et al., 1996). 이러한 대인간 외상의 영향이 통합되지 못한 상태에서 심상과 강한 정서적 반응이 유발되면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돌출행동과 함께 일탈행동을 초래하여(Van Der Kolk, 2003) 품행문제 출현과 지속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Greenwald, 2002). 예를 들어 학대 받은 영유아는 다른 아동에 비해 타인의 외적인 얼굴 표정인식에 어려움을 보인다. 타인의 외적인 얼굴표정, 행동과 같은 외적 특징을 토대로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외적인 정신화하기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임유경과 오경자(2010)의 연구에서 품행문제를 보이는 청소년이 외적인 정신화하기 능력에 해당되는 얼굴표정 인식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대인간 외상은 품행문제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 핵심 위험 요인이자 정신화의 일시적 정지를 가져오는 주요요인이다(Bateman & Fonagy, 2006).

정신화는 반사회적 행동 및 정신병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말하면 정신화의 발달은 삶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인 탄력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므로(Allen & Fonagy, 2006), 청소년의 품행문제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Twemlow, Fonagy and Sacco(2005)는 정신화 이론에 근거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였으며, Taubner와 Curth(2013)는 정신화가 청소년의 초기 외상경험과 공격 행동 사이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대인간 외상경험이 있는品行문제 청소년과 정신화 능력의 관련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인간 외상경험과 정신화 능력이 밀접한 관련이 있고(Allen et al., 2008), 정신화 능력이品行장애의 특징 중 하나인 냉담성 및 반사회적 행동 강화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Fonagy et al., 2002) 등을 토대로 정신화 능력이 대인간 외상경험이 있는 청소년의品行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인간 외상이 정신화와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는 기존연구(Bateman & Fonagy, 2012; Fonagy et al., 2002) 결과에 따라 연구 대상을 대인간 외상을 경험한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3개 중학교 2, 3학년 339명을 임의 표집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외상경험 질문지를 통하여 대인간 외상을 경험한 270명의 자료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학년 비율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148명(54.8%), 3학년 학생은 122명(45.2%)이었으며, 여학생 153명(56.7%)과 남학생 117명(43.3%)이었다. 대인간 외상 경험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대인간 외상 유형을 살펴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24.3%)이었고, 다음으로는 배신의 충격(23.2%), 친구들과 사이에서의 따돌림(19.7%), 가족 구성원과의 불화(13.6%), 부모님의 이혼 및 별거(9.3%), 어린 시절의 학대(4.6%), 폭력 및 강도 등의 범죄 피해(3.2%), 성추행 및 성폭력 (2.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외상경험 질문지

외상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송승훈(2007)이 사용한 외상 사건 목록 질문지를 연구자가 청소년이 경험 가능한 외상 사건유형들로 질문지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의 유형을 Allen et al.(2008)이 제시한 외상의 유형에 따라 비 대인적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경험하는 단순외상과 대인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대인간 외상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단순외상에는 본인의 신체질환, 가족 가까운 친족의 질병, 사고 및 상해, 자연재해, 재정적 어려움, 학업 및 과업 문제 등 6 가지 유형이 포함되었으며, 대인간 외상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폭행 및 강도 등의 범죄 피해, 성추행 및 성폭력, 친구들 사이에서의 따돌림, 가족 구성원과의 불화, 부모님의 이혼 및 별거, 배신의 충격, 어린 시절의 학대 등 총 8가지 유형이 포함되었으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매우 힘들고 비극적이고, 극심하게 충격적인 사건을 14가지 범주 안에서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하나만 선택하여, 외상경험으로 인한 고통의 정도를 7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다, 4점: 보통이다, 7점: 매우 고통스러웠다)로 평정하였다.

2)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orean Youth Self Report : K-YSR)

청소년의 품행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과 홍강의(2001)가 번안하고 표준화한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119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K-YSR의 외현화 문제인 공격성(19문항)과 비행(11문항)척도를 합하여 사용하였다(김주미, 신민섭, 김은정, 2011). K-YSR의 외현화 문제 척도는 0점(거의 그렇지 않다)-2점(항상 그렇다)으로 평정하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60점이다. 오경자 외(2001)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66-.85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86으로 나타났다.

3) 정신화 능력

본 연구에서는 공감척도, 눈으로 마음 읽기 테스트, 정신화 질문지를 통해 정신화 능력을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측정하였다.

(1) 정신화 질문지(Mentalization Questionnaire: MZQ)

정신화 능력을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측정하기 위해 Hausberg et al.(2012)이 임상 표본을 대상으로 개발한 정신화 질문지(MZQ)를 사용하였다. MZQ 척도의 문항 변안은 원척도(Mentalization Questionnaire)의 대표저자 Hausberg의 사전 승인을 받은 뒤 진행하였다(2014년 4월). 이후 문항의 내용을 연구자가 일차 번안한 뒤,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native speaker 1명의 도움을 받아 번역, 역 번역하였다. 이와 같이 번안된 문항들은 임상심리학 전공 교수의 검토를 거쳐 교정함으로써 번안 과정을 완료하였다.

본 질문지의 문항으로는 거부적 자기 조망(refusing self-reflection) “대체로 아무 것도 느끼지 않는 편이 낫다”, 정서 인식(emotional awareness) “긴장하면 자주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인식하기 어렵다”, 정신적 동등 모드(psychic equivalence mode) “나는(데이트, 선물, 포옹)같은 현실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누군가 정말 나를 좋아한다고 믿는다”, 정서 조절(regulation of affect) “종종 나는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 등의 정신화의 전반적인 실패를 나타내는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동의하지 않는다)-5점(동의한다)으로 평정한다. Hausberg et al.(2012)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관성(Cronbach's α)는 .81이었고, 하위 척도에 따라 .54에서 .7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관성은 .82이었고, 하위 척도에 따른 내적 일관성은 .69에서 .77로 나타났다.

(2) 한국판 단축 공감척도(Empathy Quotient Short Form : EQ-Shotr-K)

Baron-Cohen과 Wheelwright(2004)가 개발한 척도를 여지영(2012)이 번안하고 단일 요인 구조로 구성한 한국판 단축 공감척도 11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누군가가 말하는 것과 그 의미가 다를 때 재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 “나는 누군가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나는 누군가가 어떻게 느낄지

예측을 잘한다” 등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지영(2012)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8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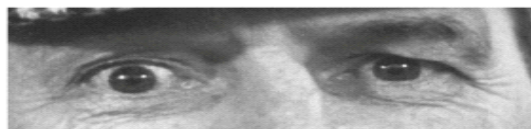
(3) 아동용 눈으로 마음읽기 테스트(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Child Version)

아동용 눈으로 마음읽기 테스트(Baron-Cohen, Wheelwright, Scabill, Lawson & Spong, 2001)는 성인용 눈으로 마음읽기 테스트(Baron-Cohen, Jolliffe, Mortimore & Roverson, 1997)에서 고안되었다. 아동용 눈으로 마음읽기 테스트의 번안은 원칙도의 대표저자 Baron-Cohen의 사전 승인을 받은 뒤 진행하였다(2014년 4월). 이후 테스트의 내용을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번안한 뒤, 2차 척도 번안은 한국과 동일한 동양권 국가인 중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한국인 1명이 중국어 버전을 번역하였다. 3차 척도 번안은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영어권 국가의 native speaker 1명과 번역, 역번역 하고 최종 번안 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여러 번의 번역 및 재 번안 과정을 거쳐, 설문 문항이 역 번안 결과에서도 척도와 동일한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번안하였다.

이 테스트는 얼굴 영역 중 눈 주변에 초점을 맞춘 28개의 흑백 사진으로 구성되었으며, 실험 참가자는 사진에 제시된 4가지 단어 중 사진 속 사람의 생각 또는 감정을 가장 정확히 기술하는 단어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4개 중 3개의 단어는 정답을 방해하는 정신 상태에 대한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단어만이 정답이다.

질투하는

두려워하는



편안한

싫은

그림 1. 아동용 눈으로 마음읽기 테스트 연습용(Baron-Cohen et al., 2001)

3. 연구조사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청소년 339명을 대상으로 중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의 절차와 목적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설문은 H·R시간을 이용하여 실시되었으며, 검사를 모두 완성하는데 대략 40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PASW)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치를 조사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외상경험과 정신화 능력, 품행문제의 관계는 단순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외상경험과 품행문제의 관계에서 정신화 능력의 조절효과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품행문제와 대인간 외상, 정신화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의하면, 대인간 외상경험으로 인한 고통감이 클수록 정신화 질문지의 4가지 하위요인 중 거부적 자기조망($r=.19, p<.01$)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공감 및 눈으로 마음읽기 능력과도 다소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13, .14, p<.05$). 또한 대인간 외상이 높을수록 품행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26, p<.01$).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로,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으로 인한 고통감, 정신화 능력, 품행문제는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인들 간의 관계 탐색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대인간 외상, 정신화, 품행문제 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 대인간 외상	1								
2. 정신화질문지	.21**	1							
3. 거부적 자기조망	.19**	.80**	1						
4. 정서 인식	.15*	.80**	.58**	1					
5. 정신적 동등모드	.16**	.78**	.50**	.45**	1				
6. 정서 조절	.13*	.70**	.37**	.40**	.39**	1			
7. 공감	.13*	.01	.01	-.04	-.06	.15*	1		
8. 눈으로 마음읽기	.14*	-.05	-.02	-.06	-.04	-.03	.08	1	
9. 품행문제	.26**	.47**	.35**	.38**	.30**	.44**	.18**	-.23**	1

* $p < .05$, ** $p < .01$

2. 정신화의 조절효과

대인간 외상경험과 품행문제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대인간 외상경험과 품행문제의 관계에서 정신화 질문지의 하위요인 중 거부적 자기조망에서만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표2를 보면 단계 1에서 대인간 외상경험으로 인한 고통감은($\beta=.28$, $p<.001$) 품행문제의 전체 변량의 8.0%를 유의하게 설명하여 대인간 외상경험이 품행문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 2에서 거부적 자기조망($\beta=.32$, $p<.001$)을 투입하자, 전체 변량의 17.4%가 설명되어 이전 단계보다 9.4%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단계 3에서 거부적 자기조망과 대인간 외상고통의 상호작용 항($\beta=.14$, $p<.001$)을 투입하자, 이전 단계보다 1.7%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여 총 19.1%의 설명량을 나타내었다, $F(3, 266)=21.18$, $p<.05$. 이는 대인간 외상이 품행문제에 미치는 효과에서 거부적 자기조망 점수가 1점 증가함에 따라 상호작용 항 계수 B가 0.13

점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인간 외상으로 인한 고통감과 거부적 자기조망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품행문제의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예측변인과 조절변인, 상호작용 항 모두 준거변인인 품행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거부적 자기조망을 유사 조절변인으로 볼 수 있다 (Sharma, Durand & Gur-Arie, 1981).

아울러 정신화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대인간 외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집단과 낮은 점수를 받은 집단을 구분, 품행문제와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인간 외상경험으로 인한 고통정도가 낮으면서(하위 30%) 거부적 자기조망이 높은 집단(상위 30%)의 품행문제 점수($M=8.52$, $SD=4.69$)와, 대인간 외상경험으로 인한 고통이 낮으면서 거부적 자기조망이 낮은 집단의 품행문제 점수($M=6.58$, $SD=4.69$) 간의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t(78)=-1.88$, ns, 대인간 외상경험으로 인한 고통감이 높으면서 거부적 자기조망이 높은 집단의 품행문제 점수($M=11.78$, $SD=6.06$)와 대인간 외상경험으로 인한 고통감이 높으면서 거부적 자기조망 능력이 낮은 집단의 품행문제 점수($M=7.26$, $SD=4.41$)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109)=-4.23$, $p<.001$. 즉, 대인간 외상으로 인한 고통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거부적 자기조망 수준이 높을수록 품행문제 증가 경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가설 2에서 2-1의 가설만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표 2

품행문제에 대한 대인간 외상과 거부적 자기조망의 위계적 회귀분석

단계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R ²	t	F
		B	SE	β			
1단계	대인간 외상	.28	.06	.28	.08	4.71***	22.16***
2단계	대인간 외상	.20	.06	.20	.17	3.54***	28.00***
	거부적 자기조망	.32	.06	.32		5.60***	
3단계	대인간 외상	.20	.06	.20	.19	3.60***	21.18***
	거부적 자기조망	.31	.06	.31		5.52***	
	대인간 외상× 거부적 자기조망	.13	.05	.14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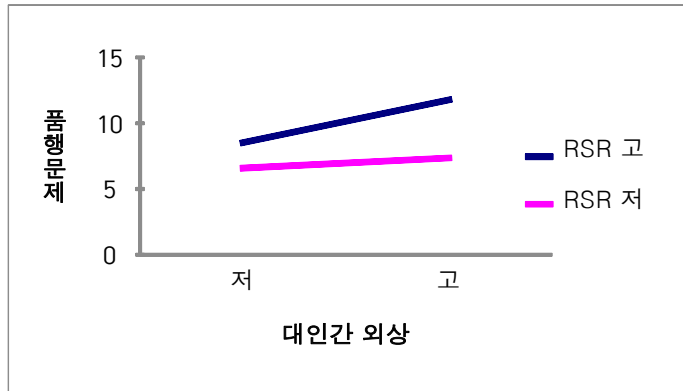


그림 2. 품행문제에 대한 대인간 외상으로 인한 고통과
거부적 자기조망(Refusing self-reflection)의 상호작용

두 번째로, 대인간 외상과 품행문제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하위요인인 공감의 10%, 대인간 외상이 8%로 각각 유의한 설명을 보인 반면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공감에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3, 266)=10.41$, ns. 이는 연구가설 3을 기각하는 결과이다.

세 번째로 대인간 외상경험으로 인한 고통정도와 품행문제의 관계에서 눈으로 마음 읽기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표 3을 보면 단계 1에서 투입한 대인간 외상경험으로 인한 고통감은($\beta=.21$, $p<.001$)은 품행문제의 전체 변량의 5.1%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단계 2에서 눈으로 마음읽기($\beta=-.24$, $p<.001$)를 투입하자, 전체 변량의 10.4%가 설명되어 이전 단계보다 5.3%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단계 3에서 눈으로 마음읽기와 대인간 외상의 상호작용 항($\beta=-.17$, $p<.001$)을 투입하자, 이전 단계보다 3%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여 총 13.4%의 설명량을 나타내었다, $F(3, 26)=13.22$, $p<.05$. 이는 대인간 외상이 품행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눈으로 마음읽기가 1점 증가함에 따라 상호작용 항 계수 B가 0.16점 감소하는 것을 나타낸다. 즉, 대인간 외상으로 인한 고통감이 높아도 눈으로 마음읽기 수준이 개발된다면 청소년의 품행문제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또한 눈으로 마음읽기 능력이 유사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집단비교 결과, 그림 3을 보면 대인간 외상경험으로 인한 고통정도가 낮은 집단(하위 30%)에서, 눈으로 마음읽기가 낮은 집단(하위 30%)의 품행문제 점수($M=1.61$,

SD=1.51)와 눈으로 마음읽기가 높은 집단(상위 30%)의 품행문제 점수(M=1.62, SD=1.57)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t(78)=-.06$, ns. 그러나 외상으로 인한 고통정도가 높은 집단(상위 30%)에서 눈으로 마음읽기가 낮은 집단(하위 30%)의 품행문제 점수(M=2.87, SD=2.18)와 눈으로 마음읽기가 높은 집단(상위 30%)의 품행문제 점수(M=1.81, SD=1.61)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t(93)=2.63$, $p<.001$. 즉, 대인간 외상으로 인한 고통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눈으로 마음읽기 능력이 높을수록 품행문제 감소에 경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가설 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표 3

품행문제에 대한 대인간 외상과 눈으로 마음읽기의 위계적 회귀분석

단계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R2	t	F
		B	SE	β			
1단계	대인간 외상	.21	.06	.21	.05	3.58***	12.81***
2단계	대인간 외상	.22	.06	.22	.10	3.80***	14.94***
	눈으로 마음읽기	-.24	.06	-.24		-4.04***	
3단계	대인간 외상	.22	.06	.22	.13	3.79***	13.22***
	눈으로 마음읽기	-.23	.06	-.23		-4.02***	
	대인간 외상× 눈으로 마음읽기	-.16	.05	-.17		-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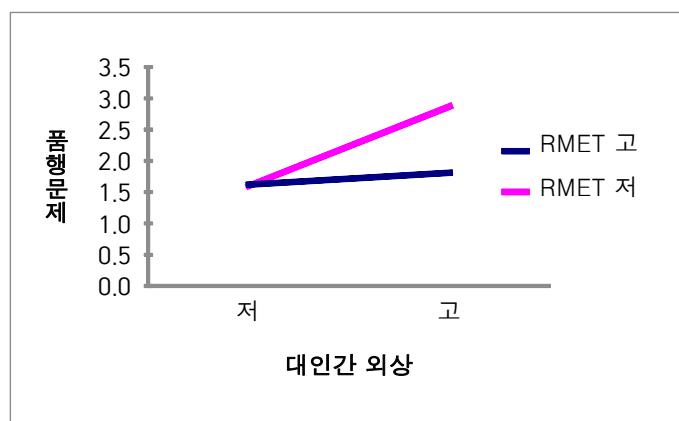


그림 3. 품행문제에 대한 대인간 외상으로 인한 고통감과 눈으로 마음읽기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의 상호작용

V. 논 의

본 연구는 정신화의 발달이 반사회적 행동 및 공격성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론을 근거로(Taubner & Curth, 2013), 대인간 외상과品行문제의 관계에 정신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간 외상으로 인한 고통은品行문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대인간 외상고통은 정신화의 하위요인과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정신화 능력이 대인간 외상과 더불어品行문제에 연관이 있는 걸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과品行문제가 정적 상관을 가진다는 국내외 기존연구(Greenwald, 2000; 이홍림, 200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대인간 외상경험으로 인한 고통감이 클수록 정신화 능력의 전반적인 실패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감 및 눈으로 마음읽기 능력은 미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대인간 외상의 신뢰도 계수가 낮은 점과 외상의 하위요인에서 단순 외상을 제외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기존의 외상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정신화가 손상된다는 선행 연구(Allen et al., 2008; Bateman & Fonagy, 2006; Perelberg & Shengold, 1999)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나 기존의 연구가 단순외상과 대인간 외상이 모두 포함된 외상척도를 사용하여 정신화와의 관계를 살펴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외상 중에서 대인간 외상과 정신화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라고 여겨진다. Bateman과 Fonagy(2006)는 애착 외상과 같은 대인간 외상을 경험한 아동은 애착 체계의 과 활성화로 인해 외상 경험을 주는 양육자에게 오히려 다가가는 패턴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品行문제 청소년의 높은 공감과 눈으로 마음읽기 점수는 최근의品行문제와 공감능력의 관계가 없다는 기존의 연구(Lovett & Sheffield, 2007; Gonzalez, Andrews & File, 1996)에서 나아가 오히려品行장애 청소년들이 타인의 내적 상태를 읽는 것에 능숙하다는 선행연구(Bateman & Fonagy, 201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대인간 외상경험과品行문제의 관계에서 정신화 척도의 하위요인인 거부적 자기조망 수준이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는 대인간 외상경험으로 인한 고통감이 높을 때 자신에 대한 성찰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거부적 자기조망 수준에 따라品行문제의 정도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즉, 대인간 외상경험으로 인한 고통 수준이 높을수록品行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나 고통감이 높아도 거부적 자

기조망 수준이 낮다면 개인의 품행문제는 경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낮은 자기조망수준과 대인간 외상경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심영숙, 2010; Allen et al., 2008; Bateman et al., 2013; Fonagy et al., 2002)와 유사한 맥락으로 자기조망수준의 발달이 청소년의 품행문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대인간 외상으로 인한 고통 정도가 높을 때 외상이 일어난 맥락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심리적 존재로 이해할 수 있으면 외상 경험이 품행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정신화 질문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인식, 정신적 동등 모드, 정서조절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앞서 밝혔듯이 정신화는 다면적인 개념으로 이 세 요인은 단일적인 변인으로 투입하여 정신화를 설명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인간 외상경험과 품행문제의 관계에서는 공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감척도가 자신의 상태를 배제한 타인의 상태를 지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감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 정의가 다양하다. Gallese, Keysers and Rizzolatti(2004)는 공감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정신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Gallese et al.(2004)은 자신에 대한 정신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타인에 대한 적절한 공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 타인에 대한 정신화를 측정하는 공감척도만을 투입하여 대인간 외상과 품행문제간의 관계는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감과 반사회적 행동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최신의 연구 결과들(Cornell & Frick, 2007; Espelage, Gutzsell & Swearer, 2004)과 일치하는 결과로 공감의 정의 및 측정도구에 따른 변량의 개인차와 표집 차가 조절역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눈으로 마음읽기 능력이 대인간 외상으로 인한 고통감과 품행문제와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이는 대인간 외상경험으로 인해 현재 느끼는 고통감이 높을수록 품행문제 성향의 수준이 높으나, 외상경험으로 인한 고통감이 높더라도 타인의 외적인 면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파악하는 능력이 높다면 개인의 품행문제 수준이 경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눈으로 마음읽기 능력이 외상과 품행문제 예측에 효과적이라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Fairchild, Van Goozen, Calder, Stollery & Goodyer, 2009; Marsh & Blair, 2008). 많은 연구에서 품행문제 청소년들

의 50%가 성인기의 반사회적 성격으로 발전하는 전조 증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Gretton, Hare & Catchpole, 2004; Hare, Hart & Harpur, 1991). 타인의 외적인 특징을 통해 정서를 읽어내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 타인에 대한 고통감의 결핍, 공격적 행동을 통제하는 것의 결핍을 초래하며(Bateman & Fonagy, 2012), 공격적인 행동을 더 쉽게 저지르도록 만든다. 반대로 말하면 본 연구에서의 눈으로 마음읽기 능력의 개발은 타인의 고통감에 대한 성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청소년의 품행문제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지금까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정신화와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의 범위를 넓혀 국내 최초로 청소년의 정신화 능력 및 품행문제 간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서수균, 2007),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Anderson & Bushman, 2002). 이러한 정서적·행동적 특성으로 인하여 중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품행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중재 및 개입방법이 사회적으로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의 정신화 능력을 증진에 따른 유용성을 살펴봄으로서 효과적으로 품행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학교기반의 정신화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본 연구가 정신화의 개념을 다차원적인 개념에서 세분화하고, 정신화를 측정하는 척도를 번안하여 국내 연구에서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측정도구를 최초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는 정신화 능력을 측정할 때 공감척도만을 사용하거나(문수진 외, 2012; 오소영 외, 2012), 정서조절 곤란척도를 대체하여 사용하였다(김재형, 2014; 이현주, 안명희, 2012).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정신화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정신화의 전반적 실패를 반영하는 정신화 질문지(MZQ), 타인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공감척도(EQ-Short-K), 타인의 외적 특징을 토대로 정신화 하는 능력을 반영하는 눈으로 마음읽기 테스트(C-RMET) 등을 통해 정신화 능력을 다차원적인 면에서 측정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품행장애 준 임상표본의 특성을 탐색하여 품행장애의 병진 증상이나 병리의 초기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나아가 대인간 외상경험과 품행문제의 관계에서 정신화 능력이 조절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은 정신

화 능력이 품행문제의 예방 및 조기개입의 단서를 제시했다는 데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정서적 혼란이 심한 중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품행문제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할 때, 그들이 상황이나 타인의 의도뿐만 아니라 표정 같은 단서들도 잘못 인식 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나아가 타인으로부터 받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면 품행문제 청소년이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Twemlow et al.(2005)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정신화 이론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정신화 능력 향상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학업 성적 향상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였다. 문수진 외(2012)는 정신화 개념을 바탕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체 모델 프로그램 (MiPAdo-CM)을 중학교 2학년 10개 학급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실험군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정신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장면에서의 개입방법을 통해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으로 인한 고통감을 경감시키고, 학교기반의 품행문제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결과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일반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임상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외상 및 품행문제를 자기보고식으로 평가하였는데, 자기보고식 평가 도구들 중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긍정적으로 보이는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소영, 박기환, 2015).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외상과 품행문제를 면접 기법이나 행동 관찰 등을 적용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측정하는 도구의 보완을 고려함으로써 자료의 객관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정신화를 정의함에 있어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이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다차원적인 척도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그러나 국내에서 정신화 척도에 대한 명확한 도구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정신화 척도에 대한 타당화 작업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신화 측정 도구들의 내적일관성은 대부분 높으나, 재검사법에 의한 신뢰도 연구가 부재하다는 Choi-Kain와 Gunderson(2008)의 지적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재검사법에 의한 신뢰도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의미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석만 (2013).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재형 (2014).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 능력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주미, 신민섭, 김은정 (2011). 우울-품행장애성향 청소년 애착, 초기 부적응 도식, 대처 방식의 특성. **정서·행동장애연구**, 27(4), 77-100.
- 김혜순, 이숙 (2016). 품행문제 아동과 일반 아동의 기질 및 성격 특성 비교. **열린부모교육연구**, 8(4), 183-198.
- 문수진, 오소영, 이원혜, 홍민하, 민정원, 김봉석, 황준원, 우이혁, 반건호 (2012). 청소년 정신화 프로그램의 학생정신건강 증진효과 평가.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23(3), 109-116.
- 문은옥, 김혜리, 천영운, 김태화, 최현옥 (2014). 품행문제 청소년의 공감손상: 인지공감의 손상인가 정서공감의 손상인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3), 127-146.
- 반건호 (2013). 애착이론으로부터 정신화까지: 배경과 임상적 의의. **한국정신분석학회**, 24(1), 9-20.
- 박영주, 유호신, 한금선, 권정혜, 김한겸, 조윤정 외 (2009). 학교기반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한국간호과학회**, 39(1), 145-156.
- 서수균 (2007). 일반개재: 자존감과 자기에 수준에 따른 분노사고, 신념, 분노표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19-734.
- 소영, 박기환 (2015). 분노반추와 분노의 관계에서 사고통제감의 조절효과. **인지행동치료**, 15(1), 95-111.
- 송승훈 (2007). **한국판 외상 후 성장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영숙 (2010). **성찰기능과 정신병리의 관계-외상과 악몽을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여지영 (2012). 한국판 단축 공감척도의 타당화.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11), 5356-5363.
-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

양적성 출판사.

오소영, 문수진, 이원혜, 홍민하, 민정원, 김봉석 외 (2012). 단축형 청소년 정신화 프로그램의 학생정신건강 증진효과 평가.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23(3), 117-126.

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 하지현 (2009). 한독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563-578.

유재학, 서민재, 박지선 (2013). 아동기 외상경험과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 자신과 부모 평가 간의 관계.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4(1), 34-43.

이춘재, 서형란, 송길연, 윤혜경, 김혜리, 박혜원 외 (2011). **발달정신병리학 영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5판). 서울: 박학사.

이현주, 안명희 (2012).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청소년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413-434.

이홍림 (2004).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과 우울, 품행장애 성향,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효선, 방명애 (2012). 자아존중감 집단중재 프로그램이 품행장애 위험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8(2), 171-194.

이희정 (2001). **품행장애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자아 정체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임유경, 오경자 (2010). 얼굴 표정 정서인식의 민감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1029-1046.

차혜명, 김은영 (2016). 정신화(mentalization) 개념을 통한 애착 이론과 정신 분석의 재조명: 정신화의 경험적 기반과 측정의 임상적 함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167-190.

한영옥 (1999). **품행장애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 과정에 관한 연구: 반사회적 행동과 우울 성향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한영옥 (2008). 재미 한인 청소년의 음주 및 약물사용과 비행행동 간의 관계 및 위험 요인과 보호요인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15(6), 225-250.

Aiken, L. S.,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llen, J. G., & Fonagy, P. (Eds.). (2006). *The handbook of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West Sussex: John Wiley & Sons.
- Allen, J. G. (2008).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
- Allen, J. G., Fonagy, P., & Bateman, A. W. (2008). *Mentalizing in clinical practi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
- Anderson, C. A., & Bushman, B. J. (2002). Human aggression. *Psychology*, 53(1), 27.
- APA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Texas: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Publishing.
- Baron-Cohen, S., Jolliffe, T., Mortimore, C., & Robertson, M. (1997). Another advanced test of theory of mind: Evidence from very high functioning adults with autism or Asperger syndrom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8(7), 813-822.
- Baron-Cohen, S., Wheelwright, S., Spong, A., Scahill, V., & Lawson, J. (2001). Are intuitive physics and intuitive psychology independent? A test with children with Asperger Syndrome.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Learning Disorders*, 5(1), 47-78.
- Baron-Cohen, S., & Wheelwright, S. (2004). The empathy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 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4(2), 163-175.
- Bateman, A., & Fonagy, P. (2006).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practical guid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teman, A., & Fonagy, P. (Eds.). (2012). *Handbook of mentalizing in mental health practi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
- Bateman, A., Bolton, R., & Fonagy, P. (2013).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 mentalizing framework. *FOCUS: The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in Psychiatry*, 11(2), 178-186.
- Beaulieu-Pelletier, G., Bouchard, M. A., & Philippe, F. L. (2013). Mental states

- task (MST): Development, validation, and correlates of a self report measure of mentaliz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9(7), 671-695.
- Chemtob, C. M., Novaco, R. W., Hamada, R. S., Gross, D. M., & Smith, G. (1997). Anger regulation deficits in combat relat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0(1), 17-36.
- Choi-Kain, L., & Gunderson, J. (2008). Mentalization: Ontogeny, assessment, and application in the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5(9), 1127-1135.
- Cornell, A. H., & Frick, P. J. (2007).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ing styl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parent-reported guilt and empathy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3), 305-318.
- Espelage, D. L., Gutzsell, E. W., & Swearer, S. M. (Eds.). (2004). *Bullying in American schools: A social-ecological perspective on prevention and intervention*. London: routledge.
- Fairchild, G., Van Goozen, S. H., Calder, A. J., Stollery, S. J., & Goodyer, I. M. (2009). Deficits in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in male adolescents with early-onset or adolescence-onset conduct disorde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5), 627-636.
- Fonagy, P. (1991). Thinking about thinking: Some clinical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the treatment of a borderlinge patient. *Int J Psychoanal*, 72(4), 639-656.
- Fonagy, P., Steele, M., Steele, H., Leigh, T., Kennedy, R., Mattoon, G., & Target, M. (1995). *Attachment, the reflective self, and borderline states: The predictive specific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and pathological emotional development*. New York: Analytic Press.
- Fonagy, P., Leigh, T., Steele, M., Steele, H., Kennedy, R., Mattoon, G. et al. (1996). The relation of attachment status, psychiatric classification, and response to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1), 22.

- Fonagy, P., & Target, M. (1997). Attachment and reflective function: Their role in self-organiz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4), 679-700.
- Fonagy, P., Gergely, G., Jurist, E., & Target, M. (2002).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New York: Other Press.
- Fonagy, P., & Luyten, P. (2009). A developmental, mentalization-based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4), 1355.
- Gallese, V., Keysers, C., & Rizzolatti, G. (2004). A unifying view of the basis of social cogni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8(9), 396-403.
- George, C., Kaplan, N., & Main, M. (1996). *Adult attachment interview*. California: The Authors.
- Gonzalez, L. E., Andrews, N., & File, S. E. (1996). 5-HT 1A and benzodiazepine receptors in the basolateral amygdala modulate anxiety in the social interaction test, but not in the elevated plus-maze. *Brain research*, 732(1), 145-153.
- Greenwald, R. (2000). A trauma-focused individual therapy approach for adolescents with conduct disorder.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4(2), 146-163.
- Greenwald, R. (2002). The role of trauma in conduct disorder.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6(1), 5-23.
- Gretton, H. M., Hare, R. D., & Catchpole, R. E. (2004). Psychopathy and offending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 10-year follow-up.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2(4), 636.
- Hare, R. D., Hart, S. D., & Harpur, T. J. (1991). Psychopathy and the DSM-IV criteria for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3), 391.
- Harrington, R., Fudge, H., Rutter, M., Pickles, A., & Hill, J. (1990). Adult outcomes of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I. Psychiatric status,

-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7(5), 465-473.
- Haskett, M. E. (1990).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of young physically abused childre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1(2), 109-118.
- Hausberg, M. C., Schulz, H., Piegler, T., Happach, C. G., Klöpper, M., Brütt, A. L. et al. (2012). Is a self-rated instrument appropriate to assess mentalization in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Development and first validation of the mentalization questionnaire (MZQ). *Psychotherapy Research*, 22(6), 699-709.
- Holmes, J. (2005). Notes on mentalization—old hat or new wine?. *British Journal of Psychotherapy*, 22(2), 179-198.
- Kazdin, A. E. (1995). *Conduct disord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Vol. 9). London: Sage Publications.
- Koenen, K. C., Fu, Q. J., Lyons, M. J., Toomey, R., Goldberg, J., Eisen, S. A. et al. (2005). Juvenile conduct disorder as a risk factor for trauma exposur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1), 23-32.
- Kovacs, M. (1989). Affective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st*, 44(2), 209-215.
- Lieberman, M. D. (2007). Social cognitive neuroscience: A review of core processes. *Annu. Rev. Psychol.*, 58, 259-289.
- Lovett, B. J., & Sheffield, R. A. (2007). Affective empathy deficits in aggressive children and adolescents: A critic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1), 1-13.
- Luxenberg, T., Spinazzola, J., & Van der Kolk, B. A. (2001). Complex trauma and disorders of extreme stress (DESNOS) diagnosis, part one: Assessment. *Directions in psychiatry*, 21(25), 373-392.
- Marsh, A. A., & Blair, R. J. R. (2008). Deficits in facial affect recognition among antisocial populations: A meta-analysis.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32(3), 454-465.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4), 674.

- Newbury-Helps, J. (2011). *Are difficulties in mentalizing associated with severity of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College London, UK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
- Patterson, G. R., DeBaryshe, B. D.,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4(2), 329-335.
- Perelberg, R. J., & Shengold, L. (Eds.). (1999). *Psychoanalytic understanding of violence and suicide*. London: Routledge.
- Rivera, B., & Widom, C. S. (1990). Childhood victimization and violent offending. *Violence and victims*, 5(1), 19-35.
- Satpute, A. B., & Lieberman, M. D. (2006). Integrating automatic and controlled processes into neurocognitive models of social cognition. *Brain research*, 1079(1), 86-97.
- Semerari, A., Carcione, A., Dimaggio, G., Nicolo, G., Pedone, R., & Procacci, M. (2005). Metarepresentative function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9(6), 690-710.
- Sharma, S., Durand, R. M., & Gur-Arie, O. (1981).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moderator variabl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3), 291-300.
- Sharp, C., Williams, L. L., Ha, C., Baumgardner, J., Michonski, J., Seals, R. et al. (2009). The development of a mentalization-based outcomes and research protocol for an adolescent inpatient unit.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73(4), 311-338.
- Taubner, S., & Curth, C. (2013). Mentalization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early traumatic experiences and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ce. *Psihologija*, 46(2), 177-192
- Terr, L. C. (1991). Childhood traumas: An outline and over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1), 10-20.

- Twemlow, S. W., Fonagy, P., & Sacco, F. C. (2005). A developmental approach to mentalizing communities: II. The Peaceful Schools experiment.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69(4), 282-304.
- Van der Kolk, B. A. (2003). *Psychological trauma*.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

ABSTRACT

The moderating effects of mentaliz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trauma experience and conduct problems during adolescence

Choe, Hyunah* · Song, Hyunjo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mentaliz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trauma experience and conduct problems.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in three middle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do, and all participants were given the Trauma Experience Questionnaire, the Mentalization Questionnaire, the Korean Version of the Empathy Quotient-Short Form, the Child version of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and the Externalizing problem scores of the Korean-Youth Self Repor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terpersonal trauma experience showed correlations with mentalization abilities and with conduct problems. Second,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of control effects in term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ntalization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terpersonal trauma experience and conduct problems. This means that mentalization played a moderating role between interpersonal trauma experience and conduct problems. The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support the notion that mentalization may serve as a protective factor in preventing conduct problems despite experience of interpersonal trauma.

Key Words: interpersonal trauma experience, conduct problem, mentalization

투고일: 2017. 6. 9, 심사일: 2017. 7. 28, 심사완료일: 2017. 8. 10

* Seoul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rofessional Therapeutic Technology

** Seoul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rofessional Therapeutic Technology, Corresponding Author, jayoo1004@swu.ac.kr